

진포대첩(鎭浦大捷)과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향

이남희*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진포와 진포대첩 | 참고문헌 |
| 3. 진포대첩과 지역문화 콘텐츠 | <Abstract> |

국문초록

진포대첩은 고려말 오백 선단의 왜구가 진포 지역에 침입하여 조창의 세곡을 탈취하려던 것을 크게 물리친 해전이다. 그 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기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진포가 어디인가 하는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다. 진포대첩과 관련해서 군산, 서천, 익산지역에 여러 형태의 기념물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진포대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지리적 논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관점과 지역 간 협력을 강조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진포대첩을 통해서 지역으로서 진포의 지정학에 접근해 보면, 진포는 금강 내륙 수로의 하류 지역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어느 한 행정구역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진포대첩의 역사 현장은 지역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아우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좋으며, 디지털 뮤지엄 및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 역시 요청된다. 그런 작업을 위해서 ‘진포대첩 종합정보 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진포, 진포대첩, 금강, 지역문화, 디지털 뮤지엄, 아카이브, 종합정보 연구센터

* 원광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센터장, 교수. E-mail: leenh@wku.ac.kr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진포대첩(鎭浦大捷)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그 역사 현장을 지역문화 콘텐츠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진포대첩은 1380년(우왕 6) 오백 척의 왜선이 진포 지역[鎭浦口]을 침입하여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고, 조창(漕倉)의 세곡(稅穀)을 탈취하려던 것을 크게 물리친 전투를 가리킨다.¹⁾ 최근에는 진포해전(鎭浦海戰)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 시대에 오백 척을 이끌고 왜구가 침략해 왔다는 것은 놀라운 규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무선(崔茂宣)이 화포(火砲)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백 척의 고려 수군이 그들을 격퇴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²⁾

진포대첩은 그 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혼란기 내지 질서 재편기의 막바지를 보여 주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전투였다. 중국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가 대결하던 시기, 즉 원과 명 교체기에 해당하며, 일본에서는 남조와 북조의 내란이 그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고려에서는 흥건적,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고려 후기의 무신(武臣) 집권과 원나라 지배, 그리고 신흥사대부의 등장과도 맞물려 있다. 황산대첩(荒山大捷)을 승리로 이끈 이성계는 그 같은 전환기와 전쟁 시기에 등장해 중앙 정계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으며, 그 연장 위에서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진포대첩은 황산대첩과 더불어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전쟁이라 하겠다.

진포대첩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진포가 어디인가 하는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서 진포대첩은 고려시대 사건인 만큼,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돌아가 당대의 자료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³⁾는 입장에 동의한다. 지명의 경우 고대사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명확한 경계 비정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같은 지명이지만 시대에 따라 가리키는 실체가 변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

1) 『고려사』권114, 열전27 나세(羅世) ; 권126, 열전39 변안열(邊安烈) ; 『고려사절요』권31, 우왕 6년 8월 ; 『태조실록』 총서. 그런데 진포를 침입한 왜구 선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문헌별로 일천 척(『동문선』권117, 特進輔國崇祿大夫青城伯沈公行狀), 삼백여 척(『태조실록』권7, 4년 4월 임오)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따라 오백 척으로 보고자 한다.

2)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정이오(鄭以吾)가 쓴 『화약고기(火藥庫記)』에 따르면 화통(火筒)과 화포가 왜구 선단을 불태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3) 박영철, 2020, 「진포와 진성창」, 『전북사학』44, 28쪽.

야 할 것이다.

고려 말기 왜구의 침략에 관한 연구는 근래 지역사와 전쟁사 분야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흐름과 맞물려 도(道)나 군현(郡縣) 등 하나의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왜구가 약탈을 목적으로 여러 지역을 휩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같은 접근은 특정 지역의 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만, 왜구의 전반적인 침략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최근 금강을 따라 중부 내륙지역으로 들어오는 경로에 주목하여 금강 유역이라는 광역 단위를 바탕으로 왜구의 침입과 진포대첩을 검토한 연구도 나왔다.⁴⁾

이 글에서는 진포는 어디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진포대첩’을 통해서 지역으로서의 진포를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어 진포대첩의 역사 현장을 지역문화 콘텐츠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향후 진포대첩의 역사 문화적 활용, 나아가서는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진포와 진포대첩

1)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미

역사서에서는 진포대첩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조실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료를 찾아볼 수 있다.

◎사료 1: 왜적의 배 오백 척이 진포 입구[鎭浦口]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서로 연결하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드디어 해안에 상륙하여 주군(州郡)으로 흩어져 들어가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으니, 시체가 산과 들을 덮었고, 그 곡식을 배에 운반하면서 쌀이 땅에 버려진 것이 한 자[尺]나 쌓였다. 나세·심덕부·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처음으로 최무선이 제작한 화포를 사용하여 그 배를 불태우자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가렸다. 왜구가 거의 다 타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도 또한 많았다. 왜구가 포로로 잡은 자녀들을 모두

4) 임형수, 2022,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진포대첩』, 『군사』125, 131-132쪽.

죽여 산처럼 쌓아놓으므로 지나가는 곳마다 피가 파도쳤으며, 오직 삼백 삼십여 인만이 탈출해서 왔다. 왜구 가운데 죽음을 벗어난 자들은 옥주(沃州)로 달아나서, 해안에 상륙해 있던 적과 합세하여 이산현(利山縣)과 영동현(永同縣)을 불태웠다.⁵⁾

◎사료 2: 나세는 본래 원나라 사람이다. 공민왕 때 여러 장수와 함께 홍건적을 쳐서 패주 시켜 이등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여러 번 자리를 옮겨 판도판서(版圖判書)가 되었다. ... 그리고 심덕부·최무선 등과 함께 백 척의 전함으로 왜적을 추격하였다. 그때 적선 오백 척이 진포 입구[鎭浦口]로 들어와 정박하여 군사를 나누어 지키면서 해안으로 올라와서 주군(州郡)으로 흩어져 들어갔다. 왜적이 노략질을 자행하니 산과 들에 시체가 뒤덮였으며 그들의 배로 곡식을 실어 날랐는데 쌀을 흘린 것이 일 척 높이가 되었다. 나세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제작한 화포를 이용해 그들의 배를 불살랐다.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뒤덮였으며, 배를 지키는 적이 거의 타죽었으며,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자도 많았다. 나세 등이 진무(鎭撫)를 보내어 승첩(勝捷)을 바치니 우왕이 기뻐하며 진무에게 각각 은 오십 냡을 하사하였으며 백관이 축하하였다. 돌아와 잡희를 크게 열어 환영하였으며 나세 등에게 금을 각각 오십 냡씩 하사하고 비장(裨將) 정룡(鄭龍)·윤송(尹松)·최칠석(崔七夕) 등에게는 은을 각각 오십 냡씩 하사하였다.⁶⁾

◎사료 3: 경신년 가을 왜선 삼백여 척이 전라도 진포에 침입하였다. 조정에서는 최무선이 제작한 화약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그를 부원수에 임명하였다. 도원수 심덕부·상원수 나세와 함께 무선은 배를 타고 화구(火具)를 싣고 진포에 이르렀다. 왜구가 화약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서 배들을 한곳에 집결시켜 다 같이 싸우려고 하였다.

- 5) 倭賊五百艘入鎭浦口 以巨絙相維 分兵守之 遂登岸散入州郡 恣行焚掠 屍蔽山野 轉穀于其舶 米棄地厚尺. 羅世沈德符崔茂宣等至鎭浦 始用茂宣所製火炮 焚其船 烟焰漲天. 賊燒死殆盡 赴海死者亦衆. 賊盡殺所俘子女山積 所過波血 唯三百三十餘人自拔而來. 賊脫死者 趨沃州 與登岸賊合 焚利山永同縣.(『고려사절요』권31, 우왕 6년 8월)
- 6) 羅世 本元人也. 恭愍朝 與諸將擊走紅賊 錄功爲二等 累轉版圖判書. ... 又與德符崔茂宣等領戰艦百艘 追捕倭賊 時賊五百艘 入鎭浦口維舶 分兵守之 登岸散入州郡. 恣行焚掠 屍蔽山野 轉穀于其舶 米棄地厚尺. 世等至鎭浦 用茂宣所製火炮 焚其船 烟焰漲天 賊守船者燒死殆盡 赴海死者亦衆. 世等遣鎭撫獻捷 禍喜賜鎭撫銀各五十兩 百官陳賀. 及還 大設雜戲迎之 賜世等金各五十兩 裨將鄭龍尹松崔七夕等 銀各五十兩.(『고려사』권114, 열전 권 27, 나세)

무선이 화포를 발사하여 그 배들을 다 태워버렸다. 배를 잃은 왜구는 육지로 올라와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노략질하였다. 그리고 다시 운봉(雲峯)에 모였다. 그때 태조가 병마 도원수로서 여러 장수와 함께 왜구를 빠짐없이 섬멸하였다. 이로부터 왜구가 점점 덜해지고 항복하는 자가 서로 잇달아 나타나서, 바닷가의 백성들이 생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태조의 덕이 하늘에 부응한 까닭이나, 무선의 공 역시 작지 않았다. 조선 개국 후에 늙어서 쓰이지는 못했으나, 임금이 그 공을 생각하여 검교 참찬을 제수하였다.⁷⁾

이들 사료를 통해서 진포대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사료 2」와 「사료 3」은 나세와 최무선 등을 비롯한 고려군의 활약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사료 1」은 민간의 피해까지 묘사하고 있다. 서로 보완이 된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진포대첩에서 읽어낼 수 있는 몇 가지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당시의 왜선 오백 척은 왜적 침략사에서 큰 규모에 속한다.⁸⁾ 어떤 식으로 대함대가 등장했는지 확실히 알긴 어렵지만, 규슈(九州)의 남조 세력이 다카기, 아마쿠사 일대의 선박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남조의 본거지 기쿠치 일대가 포위당했기 때문에 병량미를 얻기 위해서 침략했다는 견해도 나왔다.⁹⁾ 그에 따르면 1380년의 왜적은 다카기, 아마쿠사 지역 수군 세력은 물론, 규슈 최남단 오오스미 지역 호족 네지메씨 주변의 남조 세력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당시의 일본 남조는 북조의 규슈 공격이 시작되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활로를 뚫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오백 척에 달하는 대규모 선단이 일본과 가까운 남해나 동해가 아니라 서해 쪽으로 침입해 온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침략의 주요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호남 지방에서 식량을 탈취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금강 유역, 특히 진성창에는 호남 북부

7) 庚申秋 倭寇三百餘艘至全羅道 鎭浦 朝議崔公火藥 今可試矣. 乃命爲副元帥 與都元帥沈德符上元帥羅世 乘船齎火具 直至鎭浦. 寇不意有火藥 聚船相維 欲盡力拒戰 茂宣發火具 盡燒其船. 寇既失船 遂登岸劫掠全羅以至慶尙 還聚于雲峰. 上時爲兵馬都元帥 與諸將殲盡無遺. 自爾倭寇漸息 乞降者相繼 濱海之民 復業如舊. 雖由上德應天之所致 茂宣之功亦不小矣. 至國初 以年老未見用 上念其功 授檢校參贊. (『태조실록』 권7, 4년 4월 임오)

8) 참고로 임진왜란 당시 노량해전에 집결한 왜선 규모가 삼백 척이었다.

9) 이영, 2008, 「고려 말 왜구와 남조 : 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1.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 즉 미곡이 비축되어 있었다. 그것을 탈취하려는 것이 그들의 침략 목표였던 것이다. 세곡을 한데 모아 뱃길로 수도 개경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조창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조창의 운영과 운송을 위해서 진포에 수비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 위치는 바다와 금강이 만나는 금강하구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백 척에 달하는 왜적은 경계를 뚫고 들어와 곡식을 노략질하고자 했다. 그 대규모의 군단은 배들을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있었으며, 상륙해서는 여러 주군으로 흩어져 불태우고 노략질했다. 고려 백성들의 시체들이 산과 들에 뒤덮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렇게 노략질한 곡식을 운반하느라 땅에 쌓인 쌀도 적지 않았다는 것, 길가에 흩어진 것 만해도 한 자나 되었다고 전한다.

넷째, 고려 조정에서는海道원수 나세, 심덕부 그리고 최무선에게 전함 백척을 주고 진포로 보내 왜구를 막게 했다. 고려 수군은 백여 척의 선박으로 열세였다. 하지만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과 화포에 힘입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¹⁰⁾ 화포는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게다가 왜구는 배들을 서로 묶어 놓고 마치 기지처럼 삼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화포를 맞고 배를 잃어버린 왜구는 육지로 올라와서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노략질했다. 그런 다음 남원, 운봉에 모였다. 바로 그때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왜적을 섬멸했던 것이다. 황산대첩이 그것이다. 따라서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은 서로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전투가 이루어진 주요 전장은 어디였을까. 주요 전장은 금강이었을 것이다. 금강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어느 지역의 것은 아니다. 진포 역시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¹¹⁾ 주요 전장에서 승패가 결정 나자 패주한 왜적들은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전장 역시 각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부안, 김제, 부여, 공주, 옥천, 영동 등지에서 국지전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진포대첩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해전이다. 화포를 사용해서 왜적을 바다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압한 왜적 금압의 해결책을 제시한 전투였다. 해

10) 『태조실록』권7, 4년 4월 임오 ; 『양촌선생문집』권4, 「崔元帥 茂先 破鎮浦倭船 公始作 火炮」.

11) “특히 ‘鎮浦口’라는 기록에 의해서 금강하구에 있는 서천 장항이나 군산 옥구가 전장이었다고 비정할 수 없다. 이색이 본인 집이 있는 한산을 ‘鎮江口’라고 기술한 바 있으며(『목은시고』권4, 吾家住任鎮江口), 진포와 진강이 동일한 의미로 쓰였음을 고려하면 당시 진포구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금강하구 지역보다 더 넓을 수 있다. 따라서 진포대첩의 전장은 특정 지점을 지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간단히 말해 금강하구 일대, 다만 지금의 인식보다 좀 더 넓은 지역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임형수, 앞의 논문, 150-151쪽)

상에서 왜적을 격파할 수 있다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진포대첩은 동아시아 혼란기 내지 질서재편기의 막바지를 보여 주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전투였다. 진포대첩과 이어지는 황산대첩을 통해서, 특히 이성계의 부각을 상징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분수령이었다. 또한 최무선이 발명한 화포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¹²⁾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함포 전투라는 평가도 나와 있다.

2) 진포와 지정학: 군산·서천·익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군산(群山)은 옥구현(沃溝縣) 북쪽 진포(鎭浦)에 있다”고 했다.¹³⁾ 이에 따르면 진포는 옥구현 북쪽에 있는 포구로 보았다.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진포는 “충청남도 서천군 남쪽에 있었던 해포(海浦)”라 한다.¹⁴⁾ 무엇보다 포구, 해안 포구라는 것, 그리고 소재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남쪽이라 한다. 그러면서도 “금강 내륙 수로의 하류 지역에 해당하며,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은 아니었고, 임천(林川) 고다진(古多津)에서 서천포(舒川浦)에 이르는 지역을 통칭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금강 하류 지역에 위치하였던 나루는 모두 진포를 건너는 곳이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대동여지도』에서 금강 하류와 인접 군현 부분을 보면 <그림 1>과 같다.¹⁵⁾ 오늘날 금강 인접 지역은 <그림 2>와 같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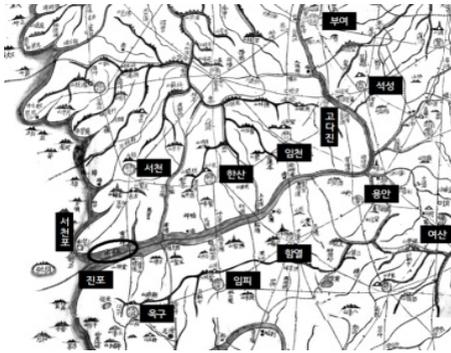
12) 고려 조정에서 화약 무기를 써보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1373년 10월 공민왕은 화전과 화통을 시험해 보았으며(觀新造戰艦 又試火箭火箭)(『고려사』권44, 공민왕 22년 10월), 그 해 11월 명나라에 배에 사용할 병기·화약·유황·염소(焰硝) 등의 물품 조달을 요청하기도 했다.(『고려사』권44, 공민왕 22년 11월)

13) 群山在沃溝縣北鎭浦.(『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14) 한국학중앙연구원편, 『진포(鎭浦)』,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1, 1991, 534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2025.2.15.)

15)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규장각 한국학연구원)(임형수, 앞의 논문, 139쪽).

16)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 2025.2.15.) 금강은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논산시 강경읍에서부터 충청남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도계를 이루며, 군산만에서 황해로 흘러드는 401km의 강이다. 남한에서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이다.



〈그림 1〉 금강 하류와 인접 군현



〈그림 2〉 현재 금강 인접 지역

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고려해도원수 나세 진포대첩비(高麗海道元帥羅世鎭浦大捷碑)」가 있다([사진 1] 참조). 오석(烏石) 4면비에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잘 갖추고 있으며, 비문은 나세의 후손 서예가 나동균(羅東均)이 썼다. 역사적인 진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서천군에서 1996년 그 자리에 비(碑)를 세웠다. 왜선 500척이 침입해 왔을 때(1380) 나세(1320-1397)는海道원수(海道元帥)가 되어 심덕부(沈德符)·최무선 등과 함께 전함 100척을 이끌고 진포에서 최무선이 만든 화약과 화포를 실전에 처음으로 사용하여 왜선을 대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 공으로 문하평리(門下評理)가 되었다. 그는 원나라에서 귀화한 향화인(向化人)이었다.¹⁷⁾ 서천군에서는 지난 2007년 「진포구 대첩 학술대회」(서천문화원)를 개최했다.



[사진 1] 고려해도원수 나세 진포대첩비[서천]

17) 나세는 1359년(공민왕 8) 흥건적의 침략을 격퇴한 공적이 있으며, 그 공적으로 2등 공신이 되었다(1363년). 그 외에도 왜적을 방어하는데 공을 세웠다.([『고려사』권114, 열전27])

한편 서천군과 금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군산에도 「진포대첩기념탑(鎭浦大捷紀念塔)」과 「진포대첩사적비(鎭浦大捷事蹟碑)」가 세워져 있다. 「진포대첩기념탑」은 1999년 군산개항 백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17.9m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 조형물에는 최무선이 처음 사용한 화포가 하늘을 향해 화구를 겨누고 있다.¹⁸⁾ 금강 하구둑 금강시민공원,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진포대첩사적비」는 기념탑 옆에 서 있다[1999년 건립]. 오석 4면비에 화강암으로 귀부와 이수를 갖추었다. 진포대첩 전개 과정을 한글로 적었다.



[사진 2] 진포대첩기념탑, 진포대첩사적비, 진포시민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군산]

아울러 2000년 군산향토사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군산대학교)가 개최되었다.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에 진포로(鎭浦路)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금강하구 연안 도로변에 「진포시민공원」도 개장되었다(2007년). 또한 진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진포해양테마공원」을 2008년 처음 개장했으며 2010년에 완공했다.¹⁹⁾ 군산 부두의 부잔교(浮殘橋)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4,200톤급 위봉함[지하 2층, 지상 4층]을 비롯한 해경정, 수륙양용장갑차, F-86 전투기, 자주포 등 육·해·공군의 퇴역 장비 13종 16대 등을 전시하

18) 경북 영천시는 영천 출신의 최무선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기초과학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최무선과학관」을 2012년 개관했다.

19) 『디지털군산문화대전』(<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 2025.2.15).

여 공원을 조성했다. 기념관 안에는 진포대첩에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대첩 당시의 이야기 역시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진포대첩을 기념하여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익산의 응포(熊浦), 곰개나루에도 진포대첩 기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진포대첩 전장과 전투도를 그려 놓았다. 진포대첩지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사진 3] 참조). 내용이 길지만 인용해 보기로 한다.



[사진 3] 응포 진포대첩지 안내판(익산)

“진포대첩은 1380년(고려 우왕 6년)에 금강하구의 진포에 침입해 온 왜구를 고려 수군이 무찌른 해전이다.

고려 말(13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한 왜구는 특히 비옥한 호남평야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 금강을 거슬러 익산지역의 응포, 망성, 용안, 용동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강경 일대를 중심으로 세력범위를 넓혀갔다. 이에 고려 정부는 침입하는 왜구를 무력으로 격퇴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강화하였으며,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화포 등 각종 화기를 제조함으로써 국방력을 향상시켰다.

한편 1380년(우왕 6년) 8월 왜구는 금강 변에 있던 나라 세곡미가 보관되어 있었던 조창을 약탈하기 위해 500여 척의 군선을 이끌고 곰개 포구 앞 넓은 곳에 정박을 하게 된다. 왜구의 대함대가 침입했다는 급보를 접한 고려정부는 최무선 장군을 급파하여 왜선을 소탕하도록 하였다. 최무선의 지휘하에 화약 무기를 적재한 100여 척의 고려 함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화통, 화포를 주 무기로 한 공격전술을 통해 적선 500여 척과 왜구 3,000여 명을 섬멸하였다.

큰 피해를 입은 왜구는 퇴로를 차단당하자 남원 방향으로 도주하면

서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으며, 이에 고려정부는 이성계로 하여금 왜구의 잔당들을 황산에서 전멸시킴으로써 왜구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진포대첩은 세계 해전사에 있어 최초로 화포를 사용해 대승을 이룬 전투라는 점과 고려 말기 왜구 토벌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높다.”

그러면 왜 옹포에 그 같은 진포대첩 기념 안내판이 설치되었을까. 옹포에는 1428년(세종 10)부터 1487년(성종 18)까지 덕성창[德城倉 혹은 德成倉]이 있었다.²⁰⁾ 그에 앞서 1390년(공양왕 2) 용안에 득성창(得成倉)이 설치되었다. 고려 시대 금강 수계의 조창이었던 임피 진성창(鎭城倉)을 대신한 것이다.²¹⁾ 그 득성창은 1428년 함열의 피포로 이동하여 덕성창으로 개명했다. 지금의 익산시 옹포면 고창리(古倉里)가 그곳이다. 호남북부 지역의 세곡을 한데 모아 물길로 개경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조창이었다.²²⁾ 진포대첩을 전후한 시기, 금강이 주요한 교통로, 뱃길이었을 때 옹포, 강경을 거쳐서 공주 등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익산시에서는 지난 2021년 「익산 옹포, 진포대첩 학술대회」(원광대 익산학연구소)를 개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진포와 관련해서 군산, 서천, 익산 세 지역에서 모두 역사적인 의미를 기념하고 있다. 진포는 현재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것은 현재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²³⁾ 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들 행정구역과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야말로 진포가 갖는 지정학적 의미라 해야 하지 않을까 한

20) 양은용, 2018, 「익산의 농업기반과 문화정체성」,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9, 11-12쪽.

21) 고려 말 진성창은 왜구의 침략 등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그것을 대신하여 1390년(공양왕 2) 진성창보다 약간 상류 지역에 새로운 조창을 축조했다. 그것이 득성창이다. 당시 전라도 도관찰사(都觀察使) 노숭(盧嵩)은 조운 제도를 복원하고자 진포의 용안을 조창으로 건립했다. 득성창이라는 이름은 1417년(태종 17)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설치된 득성창은 현재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와 창리 지역으로 비정된다.(정요근, 2014, 「고려-조선전기 조창의 분포와 입지」, 『한국사학보』57 참조)

22) 『고려사절요』권31, 우왕 6년 8월조. 덕성창은 조선 전기 전국 9조창 중 하나로서 전라도 26개 고을[함열, 전주, 남원, 익산, 고부, 김제, 금산, 진산, 순창, 임피, 옥구, 만경, 부안, 정읍, 금구, 태인, 임실, 구례, 운봉, 장수, 진안, 용담, 무주, 고산, 여산, 용안]의 세곡을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경국대전』권2, 이전 조운조)

23) 이 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앞에서 언급한 군산향토사연구회(2000), 서천문화원(2007), 익산학연구소(2021)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다.24) 이러한 지정학적 의미가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진포대첩과 지역문화 콘텐츠

1) 진포대첩과 지역문화

진포대첩을 통해서 진포를 생각해 본다면, 진포는 금강 하구 전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적의 배 오백 척, 고려의 배 백 척이 전투를 벌이려면 좁은 지역일 수가 없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진포를 오늘날의 특정한 행정구역으로만 규정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진포대첩이 전개되었던 금강은 현재 군산, 서천, 익산 등을 지나고 있는데, 금강이 어느 행정구역의 선점물이 아닌 것과도 같다.

포(浦)라는 단어는 바닷가의 지명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진포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은 금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특성상, 강 양쪽에서 육지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 자체가 고대사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한쪽만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과 서천이 금강하구의 방어라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 온 예로부터 내려오던 진지가 진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진(鎭)이라는 단어 역시 군사적 주둔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포라는 이름 자체가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진포와 함께 진성창(鎭城倉)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에서부터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웅포의 덕성창은 나주의 영산창, 영광의 법성창과 더불어 대표적인 조운창의 하나였다. 조선 초기의 경우, 조운창은 크게 세 곳이 운영되었다[웅포의 덕성창, 나주의 영산창, 영광의 법성창]. 웅포의 덕성창은 19개 지역의 조세를 모았다[나주의 영산창 17개, 영광의 법성창 15개]. 그 19개 지역은 전주, 임실, 남원, 임피, 김제, 장수, 금구, 운봉, 익산, 만경, 여산, 금산, 진산, 태인, 옥구, 진안, 고산, 무주, 함열을 포함한다.25) 이들 조운창에는 각 지역에서 받은 조세

24) “진포는 예나 지금이나 전라와 충청의 경계이고 서해에서 중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 방어 여부에 따라 금강을 끼고 있는 여러 군현의 안위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임형수, 앞의 논문, 134쪽)

25) 이종범, 2006, 『익산지역의 조운창』, 『익산향토문화』5, 91-92쪽.

미곡이 항상 쌓여 있었다. 고려 말 진성창의 위상 역시 조선 초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조세로 받은 미곡을 강과 바다를 통해서 도읍 개성으로 운반해 갔다.

이렇게 본다면 진포는 조운이 활발하던 시기, 조세 운반의 주요 수로 및 창고가 위치했던 곳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조선 말에는 물길을 통한 운송과 교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호남선 개통과 더불어 육상교통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륙 수로로서의 운송 기능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진포대첩과 관련해서 연구와 행사는 주로 군산과 서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옹포 조창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고려하면, 익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 유적과 함께 다양한 자료가 보이기 때문이다. 세곡이 집적되던 옹포의 조창 지역은 현재 고창리(古倉里)라는 이름으로만 남아 있다. 군관들의 무용(武勇)을 기르던 덕양정(德讓亭), 전물장병을 제사 지내던 용왕사(龍王祠) 등이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포대첩에 대한 재조명은 고려 말, 나아가서는 여말선초 시대를 군산, 서천, 익산이 가깝게 품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문화콘텐츠 자원이 될 수 있다.

2) 지역문화와 콘텐츠 활성화

문화관광의 정책을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전통 인문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문화관광 정보자원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전통 인문학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문화관광 산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세기 문화콘텐츠의 시대의 도래는 문화가 자본이 되는 문화 자본주의시대를 부르게 되었다.²⁶⁾ 문화가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국가, 정부 차원 이외에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생활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 그리고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locality)이 만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 현실 생활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²⁷⁾ 지역문화는 문화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중요한

26)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경제 활동과는 독립적으로 문화 영역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가치, 즉 문화가 지닌 화폐적 가치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70년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공저한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인간이 활용하는 자본에는 경제 자본, 사회 자본, 상징 자본이 있는데 문화자본은 이 자본들과 별개로 존재하면서 이들 자본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키워드가 되었다.

진포대첩과 진포에 대한 관심과 제조명 작업은 지역문화 차원에서든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²⁷⁾ 지금까지는 진포가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고, 기념물 등을 세운 것이 갖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금강이 흘러와 바다로 들어가는 부분, 즉 금강 하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지라도 그 같은 지형학적인 특성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진포의 특성상, 다른 바닷가 지역의 지명과는 다른 성격을 띠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금강 하류에는 양쪽으로 육지와 접하고 있는 만큼 양안을 같이 포괄해서 보아야 한다. 진포를 군산이나 서천 어느 한쪽으로만 보려고 할 경우, 그 역사적 의미를 좁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진포가 현재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가보다 먼저 역사적인 현상으로서의 진포대첩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왜선 오백 척이라는 대군단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는 것이다. 일차적인 목표는 금강 조창에 비축해 둔 미곡을 탈취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진포에 있던 고려 수군을 공격하여 약탈과 노략질을 저질렀다.

이렇게 본다면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 관련 지역의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공동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 현창 사업 자체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진포대첩의 경우, 군산과 서천 그리고 익산이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관련 행사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지역이라는 개념도 감안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진포라는 역사적인 지역 탐구를 향해 군산, 서천, 익산지역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선, 군산이나 서천에 있는 기념탑, 기념비, 테마공원 외에, 종합적인 진포대첩 기념관, 구조물 등을 갖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포대첩을 테마로 다양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지역과 지역문화를

27) 이남희, 「지역문화콘텐츠 구축과 디지털 지역학」, 『인문콘텐츠』47, 2017, 19쪽.

28) 1990년대 지방자치의 시행과 더불어 서울학(1993)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지역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창식, 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19-2, 9-10쪽)

알리기 위해서는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요청된다.²⁹⁾ 그 지역의 역사와 민속, 인물과 국가유산 등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재구성해 스토리텔링화하고,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재생산해 내는 것이다. 그런 작업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문화관광 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강에서 배를 타고 진포대첩에 대한 흥미로운 해설을 들으면서 군산-서천-익산의 격전지 일대를 둘러보는 유람선 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³⁰⁾ 지역 역사문화 정보를 활용하면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지닐 수 있다.³¹⁾ 예컨대 중국 장예모(張藝謀) 감독의 『인상(印象) 시리즈』를 참고할 수 있다. 『인상 유삼저(印象 劉三姐)』는 중국 광시성(廣西省) 구이린(桂林)의 산수(山水)를 배경으로 구성한 대형 무대극이다. 마을에 전해지는 민족 설화를 바탕으로 그 지역 농어민 육백여 명을 배우로 훈련시켜 공연한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웅장한 야간 수상 공연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³²⁾

셋째,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고증에 바탕을 둔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³³⁾ 군산시에서는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³⁴⁾, 서천과 익산도 참여해서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재현해 보인다면 안팎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해남군과 진도군은 명량대첩 해전 재현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격전지에서 매년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재현해 보이는 것은 좋은 사례라 하겠다. 그것은 지역 축제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진포대첩은 참여형 형태로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소설, 뮤지

29)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골격을 짠 다음 흥미로운 스토리로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핵심이 된다. 그 지역마다 고유한 이야기 소재가 있기 때문이다.

30) 전북자치도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주요 형태별로 보면 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장충희, 2024,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과 활용방안』, 『전북학연구』12, 38쪽)

31) 지역문화 콘텐츠는 도시의 관광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로마와 『로마의 휴일』, 베로나와 『로미오와 줄리엣』, 런던과 『셜록 홈즈』 등의 성공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원도연, 2008, 『문화도시 발전과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13)

32) 이남희, 2016, 『역사문화학: 디지털시대의 한국사연구』, 북코리아, 40-41쪽.

33) 김민영, 2016,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와 재현행사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28-3 참조.

34) 군산문화원에서는 격년제로 11월에 진포대첩 재현 사업을 하고 있다.(<https://gunsan.kccf.or.kr>, 2025.2.15.)

컬, 오페라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역사 유산의 콘텐츠화 성공 사례로는 뮤지컬 『명성황후』를 들 수 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명성황후 시해 100주년이 되는 1995년에 맞추어 1993년 극단 에이콤에서 기획했다.³⁵⁾ 1994년 작가 이문열이 발표한 소설 『여우사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1995년 초연 이래로 많은 관객을 모았으며 국내 뮤지컬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기도 했다. 뮤지컬 『명성황후』이후 그 사건에 대한 대중과 국내외의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후 명성황후는 드라마, 책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³⁶⁾ 이렇게 볼 때 역사 문화유산은 국가 경쟁력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프라인 작업 외에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온라인, 디지털화 작업이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진포대첩 VR체험관: 최무선장군처럼 왜구를 물리치자』(군산시 공식 블로거), 『세계 최초의 함포 전투, 진포 대첩』(디지털군산문화대전), 『익산의 덕성창과 진포대첩』(디지털익산문화대전) 등을 이용할 수 있다.³⁷⁾ 하지만 바람직한 지역문화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과 디지털이야말로 지자체라는 틀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디지털 작업 역시 관련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역문화진흥법』(2014)이 마련되어 있다.³⁸⁾ 거기서 ‘지역문화’라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진포대첩이야말로 그 같은 지방자치 단체 행정구역 혹은 공통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기에 적합한 주제라 해야 할 것이다.³⁹⁾ 요컨대 디지털화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여러 요소를 적절

35) 김시범, 2012,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인문콘텐츠』27, 175쪽.

36) ‘반지의 제왕’은 북유럽의 신화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자 영화이며, 영화 ‘와호장룡’은 전통 중국의 무협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해리포터’ 역시 영국의 전통적인 마법의 세계를 창조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문화산업의 창작 소재로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s://www.grandculture.net/korea>).

38) 이남희, 앞의 논문, 11-13쪽.

39)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모바일,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터 등을 적극 도입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온라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디지털 뮤지엄이다. 디지털 뮤지엄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하는 문화서비스를 가상적인 환경하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뮤지엄은 연구 및 전시와 함께 사회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가상현실, 초고화질 등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융합, 가상 박물관을 구축하여 실제 경험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⁴⁰⁾ 예컨대 ‘구글 아트 앤드 컬처(Google Arts & Culture)’는 세계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을 고해상도 파노라마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박물관에 간 것처럼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진포대첩에 관심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디지털 뮤지엄에서 그와 관련된 유적지, 유물 등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지역 전통문화유산과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의 융복합으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진포대첩 디지털 뮤지엄은 최무선의 화포와 관련하여 전시물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필자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한산도대첩을 주제로 VR콘텐츠를 원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 제작한 바 있다. 현재 그 콘텐츠는 원광대학교 VR·AR 체험관에서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체험 후 만족도가 아주 높다. 책으로만 접하던 한산도대첩 과정을 VR콘텐츠로 입체적으로 세세한 과정까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포대첩 사례 역시 VR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⁴¹⁾ 진포대첩의 금강의 전체 경관을 볼 수 있는 VR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가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진포대첩 지역별 기념물 등도 촬영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가상현실공간을 통해 현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진포대첩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40) 중국에서 기념관과 박물관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시 기능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난을 극복한 충성과 승리의 상징 체계를 확립, 추모 시설을 관광 자원화하여 민족적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기도 한다.(徐仁立, 2011, 『中國紅色旅遊研究』, 中國金融出版社, 2011, 오일환·김준혁, 2015, 「중국 아편전쟁박물관의 전시콘텐츠와 역할」, 『인문콘텐츠』38, 292쪽)

41) 디지털 헤리티지를 활용한 디지털 뮤지엄에서 VR, AR,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는 온라인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20년 5월부터 디지털실감콘텐츠관을 열고 있다. 기존 문화유산을 그대로 전시하기보다 디지털 헤리티지 기술을 접목해서 관람 접근성 향상, 이해도·몰입감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서를 소장, 보관하는 문서국이나 기록보관소, 문화산업 인프라(Infra)를 갖추는 것이기도 하다. 그 지역의 인문학 관련 정보와 문헌 등의 유·무형 지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Archive)’가 그것이다.⁴²⁾ 다양한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 디지털화는 시간이 갈수록 마모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정보를 항구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역과 관련된 저서와 논문, 기타 자료들을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전통시대 역사문화를 이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생산재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⁴³⁾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원래의 자료들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도 있고 재구성해 낼 수도 있다. 디지털화된 지역문화와 그 유산은 국가 경쟁력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종래의 국가, 정부 차원 이외에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Local), 그 집합체로서의 개별 국가[Nation State], 그리고 세계화[Globalization]가 만나는 글로나컬(Glonacal)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에 구축된 다양한 사진, 동영상, 음향, 지도 등 시청각 영상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의 에듀테인먼트(Eduainment)로 재구성될 수 있다. 에듀테인먼트는 교육 학습 활동에 오락적인 흥미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현재 문화산업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이버 테마파크, 디지털 전시 영상 등 다양한 산업적 활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자 문화지도(Cultural Atlas)에 초점을

42) 디지털아카이빙 주요 구축 사례로는 미네르바(MINERVA: 미국 의회도서관), WAX (Harvard's web archiving collection service: 하버드대학교), 판도라(PANDORA: 호주 국립도서관), CEDARS(Curl Exemplars in Digital ARchiveS: 영국 리즈·옥스퍼드·캠브리지대학교) 등이 있다. 세계 디지털 인문학 연구 단체들이 결성한 국제적 네트워크인 센터넷(Centernet)을 통해 주요 국가별 디지털 인문학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43)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에서 검색하여 얻은 지역문화 자료를 창조적으로 변용, 활용할 수도 있다. 영화 『왕의 남자』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자. 『연산군일기』에 의하면 내시 김처선은 죽임을 당했으나 영화에서는 목을 매어 죽는다. 원형을 왜곡했다는 비판은 없었다. 동성애나 천민에 속하는 놀이패를 궁 안에서 기거하게 했는데, 이는 당시의 궁중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재해석하는 신선함을 보여주었다.

맞추어 국가 문화관광정보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 전자 문화지도는 디지털에 기반하여 방대한 역사문화 정보를 시간, 공간, 주제의 입체적 구조로 조직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역사문화 현상을 시공간 및 인접 항목들 사이의 다양한 교차적 관계망 속에서 파악하고, 텍스트에서 사진, 그림, 영상, 음향자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자료를 검색,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진포대첩 관련 역사 문화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종합해 보면, 장기적인 구상과 계획하에 디지털 뮤지엄과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 전자 문화지도 등을 총괄, 운영하는 ‘진포대첩 종합정보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진포대첩 연구와 조사,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자료 수집, 분석, 재구성,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진포대첩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축적되는 자료를 다각도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진포대첩 종합정보 연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지역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산학(産學) 연계,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교류 확대 등도 추진할 수도 있겠다. 이를 통해서 유기적인 국제 교류와 연계, 예컨대 역사, 인물, 학술연구 등의 국제적인 교류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진포대첩을 통해서 지역으로서의 진포가 갖는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현재 행정구역에서 진포는 어디인가 하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중요한 측면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맥락에 들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진포와 관련해서 군산, 서천, 익산 세 지역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기념하고 있다. 진포대첩을 돌아보면, 이들 세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다는 점에 진포가 갖는 지정학적 의미가 있다. 진포는 금강하구 전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왜구의 배 오백 척, 고려의 배 백 척이 전투하려면 좁은 지역일 수가 없다. ‘진포’는 당시 그 지역을 포괄하는 명칭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포를 오늘날의 특정한 행정구역으로만 규정하려는 것은 무

리가 있다.

아울러 진포대첩은 동아시아 국제사회가 전환기를 맞고 있던 시대의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일본에서는 남조와 북조의 내란과 그 후유증의 분출, 그리고 고려에서는 무인정권, 몽골 지배, 그리고 신흥사대부의 등장과 한데 맞물려 있다.

그런 만큼 진포대첩에 대한 재조명과 역사콘텐츠로서의 활용은 군산, 서천, 익산지역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문화 관광산업 자원이 된다고 하겠다. 지방자치 단체의 경계나 지역주의를 넘어서 열린 마음으로 관련 지역의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공동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래야 현장 사업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산과 서천 그리고 익산이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관련 행사도 개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역’이라는 개념도 감안 해야 할 것이다. 진포라는 역사적인 지역 탐구를 향해 군산, 서천, 익산지역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적극적인 스토리텔링 작업 역시 필요하다. 그 지역의 역사, 생활 민속, 인물, 문화유산 등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재구성해 스토리텔링화하고,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재생산해 내는 것이다.

그 같은 작업 외에 디지털화 작업 역시 요망된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람직한 지역문화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과 온라인이야말로 지방자치 단체라는 틀을 용이하게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디지털 작업 역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디지털 뮤지엄과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구상과 계획하에 디지털 뮤지엄과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 전자 문화지도 등을 총괄, 운영하는 ‘진포대첩 종합정보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겠다. 진포대첩 연구와 조사,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자료 수집, 분석, 재구성,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진포대첩과 관련하여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동시에 그렇게 축적될 자료를 다각도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필요가 있다. 진포대첩 종합정보 연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지역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산학연계,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교류 확대 등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유기적인 국제 교류와 연계, 예컨대 역사,

인물, 학술연구 등의 국제적인 교류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여 두자면 이 글이 진포대첩과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진포대첩과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논문접수일: 2025. 03. 07. / 심사개시일: 2025. 03. 24. / 게재확정일: 2025. 04. 24.

참고문헌

- 김민영, 2016,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와 재현행사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28(3), 한국도서(섬)학회, 1-14쪽.
- 김민영·김종수·윤영선, 2015, 「진포대첩 재현 고증 용역 보고서」, 『군산문화』 28, 155-215쪽.
- 김시범, 2012,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인문콘텐츠』 27, 인문콘텐츠학회, 171-180쪽.
- 김종수, 2021, 「진포대첩의 재조명」, 『군산의 역사와 인물』, 국학자료원, 58-89쪽.
- 박영철, 2014, 「진포와 진성창」, 『전북사학』 44, 전북사학회, 27-78쪽.
- 소순규, 2022, 「조선 태종대 경상, 전라도 조운제 정비의 재정사적 고찰」, 『역사학보』 253, 역사학회, 107-141쪽.
- 양은용, 2018, 「익산의 농업기반과 문화정체성」,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5-33쪽.
- _____, 2021, 「익산 옹포의 덕성창과 진포대첩」, 『익산옹포, 진포대첩 학술대회 자료집』, 6-25쪽.
- 오일환·김준혁, 2015, 「중국 아편전쟁박물관의 전시콘텐츠와 역할」, 『인문콘텐츠』 38, 인문콘텐츠학회, 291-311쪽.
- 원도연, 2008, 「문화도시 발전과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 13, 인문콘텐츠학회, 137-164쪽.
- 이남희, 2017, 「지역문화콘텐츠 구축과 디지털 지역학」, 『인문콘텐츠』 47, 인문콘텐츠학회, 9-23쪽.
- _____, 2016, 『역사문화학: 디지털시대의 한국사 연구』, 북코리아.
- 이 영, 2000, 「홍산·진포·황산 대첩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일본역사연구』 15, 5-56쪽.
- _____, 2008, 「고려 말 왜구와 남조: 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1, 경인문화사, 43-88쪽.
- 이종범, 2006, 「익산지역의 조운창」, 『익산향토문화』 5, 익산고원향토문화연구회, 87-114쪽.
- 이창식, 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역사문화학회, 7-38쪽.
- 임형수, 2022,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진포대첩」, 『군사』 125, 국방부, 131-167쪽.

- 장충희, 2024, 「전북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과 활용방안」, 『전북학연구』 12, 전북연구원, 25-56쪽.
- 정요근, 2014, 「고려-조선전기 조창의 분포와 입지」, 『한국사학보』 57, 고려사학회, 117-153쪽.
- 하정승, 2023, 「여말선초 노당 심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미」, 『포은학연구』 32, 포은학회, 147-184쪽.
- 허인옥, 2021, 「고려말 왜구의 전북지역 침입 연구」, 『전북사학』 46, 전북사학회, 93-120쪽.
- 군산향토사연구회, 2000,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 학술대회 자료집』, 군산대학교.
- 서천문화원, 2007, 『진포구 대첩 학술대회 자료집』, 서천문화원.
- 원광대 익산학연구소, 2021, 『익산옹포, 진포대첩 학술대회 자료집』, 원광대학교.
- 徐仁立, 2011, 『中國紅色旅遊研究』, 中國金融出版社.

공공누리, <https://www.kogl.or.kr>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https://map.ngii.go.kr>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

디지털익산문화대전, <http://iksan.grandculture.net/iksan>

지역n문화, <https://www.nculture.org>

최무선과학관, <https://www.yc.go.kr>

<Abstract>

The Case of Jinpo Battle and Vitalization of Local Cultural Content

Lee, Nam-Hee*

The Battle of Jinpo was a naval battle in which the Waggu of the Five Hundred Fleets of the late Goryeo Horse invaded the Jinpo area and greatly defeated the attempt to seize the three goks of Chochang. It has an international character that shows the period of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in that era.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location of Jinpo. In connection with the Jinpo Battle, you can see various types of monuments in Gunsan, Seocheon, and Iksan. In this article, we move away from the situation where the research on the Jinpo Battle has been mainly confined to geographical debates, emphasize geopolitical perspectives and cooperation between regions, and further propose ways to utilize cultural contents.

If we approach the geopolitics of Jinpo as a region through the Battle of Jinpo, Jinpo corresponds to the downstream area of the inland waterway of the Geumgang River. It did not refer to just one administrative district today. The historical site of the Jinpo Battle needs to be actively used as a local cultural content. It is recommended to proceed in a form that encompasses both offline and online, and the work of building a digital museum and digital archive is also required. For such wor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Jinpo Counterintelligence Research Center'.

Key Words : Jinpo, Jinpo Battle, Geumgang River, Local cultural content, Digital museums, Archive, Comprehensive Information Research Center

* Wonkwang University